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영업 적발

2021년부터 화장시설 갖춘 차량으로 방문 불법영업 현행법상 동물 장례는 허가받은 고정장소에서만 가능 도내에 장묘 시설 없어 최악의 경우 쓰레기로 처리

제주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영업을 한 업체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장묘는 허가 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과 기피 시설 인식으로 제주에는 허가 받은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도내 반려인들이 원정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 탓에 일부 장례 수요가 무허가 업체로 쏠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A업체를 제주동물보호법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에서 허가 없이 반려동물 장묘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업체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제주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운구차량으로 제주도 전 지역에 방문해 운구 후 화장·장례를 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반려인을 상

대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업체는 화장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직접 반려인 자택을 방문해 장례를 치르는 등 ‘이동식’ 장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 영업은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화장시설 등을 갖추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또 동물보호법이 독립된 건물, 즉 고정된 장소에서만 동물 장묘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A업체처럼 차량에 화장시설을 갖춰 이동하며 장례를 치르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규제 탓에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를 시범 도입했지만 이런 특례가 경상북도 문경과 경기도 안산 등 2개 지역으로 한정됐다.

특히 제주에는 허가 받은 고정식 동물 장묘시설조차 없어 도내 반려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

거나 죽은 반려동물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도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제도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6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제주에서 이동식 장묘 등 다양한 형태의 동물 장묘영업을 할 수 있게 시설 기준을 동물보호법이 아닌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다행히 제주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했지만, 빨라도 2025년에야 운영이 가능해 한동안 반려인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지만 장묘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은 동물 공공장묘시설이 하루 빨리 완공돼 가동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 관계자는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고발돼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5일 제주향교 명륜당에서 열린 성년의 날 행사에서 남녀 참가자 10명이 전통에 따라 초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강희민기자

■ 어제 성년의 날... 2004년생들 상투 들고 비녀 꽂다

“효도하고 공손하며 의리 지켜야”

‘성년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통 성년식이 4년 만에 재개돼 성년을 맞은 젊은이들이 축하를 받았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향교가 주관한 ‘제51회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이 15일 제주향교에서 열렸다. 이날 성년식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자 마련됐으며 한라대학교 관광일본어과 학생 10명이 참가해 전통에 따라 삼가례, 술의 의식, 성년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돼 있으며 올해 성년이 된 이들은 2004년생이다.

전통적으로 남자아가 15세에

서 19세가 돼 어른이 되면 총각머리를 거두어 올려 상투를 들고 망건과 탕건을 씌운 다음 어른의 관을 세 번 입히고 씌워준다. 이를 남자의 관례라 하며 여자 어린이는 15세가 되면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아주고 어른의 복식을 세 번 같이입혀 주는데 이를 여자의 겨례라 하며 남녀를 통틀어 관례라고 한다.

이날 행사에 나선 성년자들은 관례에 맞춰 세 번 옷을 같이입었으며 남자는 관복에 사모를 쓰고 여자는 혼례복에 원삼 쪽두리를 착용했다. 또 술을 마시는 초례의식을 갖고 남녀 대표성년자는 관례를 통해 얻은 이름인 ‘자’를 받기로 했으며 성년 선서를 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성년식에 참석한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년이 된 것을 축하드리며 선택의 자

유가 전보다 많이 주어지고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늘어나는 만큼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성년식을 주례한 제주향교 문군하 전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성년이 된 성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성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년은 집에서는 효도하고 집 밖에서는 웃어른에게 공손하며 착한 일과 더불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리를 지키며 불의를 보고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성년례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영기자

폭염특보 발표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기상청, 33°C 이상 기준... “기온과 습도 등 고려”

앞으로는 단순히 온도만이 아닌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33°C를 넘어가면 폭염특보가 발표된다.

기상청은 오는 10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체감온도 기반 폭염 특보는 기존 기온만을 고려해 발표하던 폭염 특보는 습도까지 고려해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 기반으로 개선한 것이다.

기준에는 일 최고기온이 33°C 이

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고 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앞으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는 폭염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일 때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개선된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는 운영절차 발생이 집중되는 7~8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폭염특보의 폭염 피해 예측성이 향상돼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이 실질적인 국민의 폭염 피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점검

여름철을 앞두고 제주지역 수상 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율령 수상 레저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이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안전 점검에서는 모두 9건의 경미한 사항이 적발돼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지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 성분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GA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